

거리정비사업의 주민참여방식 비교를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연구

채진해* · 김성학* · 양병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Regional Revitalization Effects of Street Improvement Projects through Comparison of the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Chae, Jin-Hae* · Kim, Seong-Hak* · Yang, Byoung-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street improvement projects in particular regions are carefully scrutinized, classified, and compared based on the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ose projects which are offered as one of several urban regeneration methods. The Wonju and Siheung Street Improvement Projects were selected for case studies, and in-depth interviews and a survey are conducted in both regions.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the Wonju project is the community initiative type in which the community has responsibilities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On the other hand, Siheung is the community participative type in which the opinions of the community have been limited.

The survey targeted more than 100 local merchants, and they were asked to answer to the questions which were categorized into 21 items with a 5-point Likert scale. The analysis method was carried out through a reliability test, regression, average analysis on each group, and a *T*-test by SPSS 18.0. Factor analysis results show four factors: physical, partnership, community, and economical revitalizat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the social factor can be sub-divided into a community factor and partnership factor.

As a result of revitalization factors by citizen participation type, the resident initiative type is more revitalized than the resident participative type in all four factors, and shows positive responses in physical and economical revitalization factors. In particular, the physical revitalization factor has a big impact on resident satisfaction regardless of type. The community revitalization factor also has an impact on two types. It reveals that the communication is as important as physical improvement. However, it shows that no type of project affects partnership revitaliz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f we considered only physical improvement as project achievement, you can achieve the desired outcome without considera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types. Furthermore, if regional revitalization is the goal of a street improvement project, we must consider other factors such as a partnership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Key Words: Urban Regeneration, Partnership, Community, Theme Street

Corresponding author: Jin-Hae Ch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70-4177-0335, E-mail: cstarsea@daum.net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리정비사업에 참여한 주민 특성에 따른 지역의 거리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알아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원주시와 시흥시에서 시행된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원주시는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주민주도형으로 분류되고, 시흥시는 주민의 의견이 제한적인 주민참가형으로 분류되었다.

설문조사는 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성화 항목 21가지를 5점 리커트척도로 질문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회귀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지표에서 더 세분화된 물리적·경제적·파트너쉽·커뮤니티 4가지 지표로 나뉘어졌다.

주민참여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주도형이 주민참가형보다 모든 지표에서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고, 물리적·경제적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물리적활성화 지표가 사업추진방식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활성화 지표도 두 사례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리적 성과만큼 소통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주민주도형과 주민참가형은 파트너쉽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살펴볼 때 사업의 성과를 물리적 개선에만 본다면 굳이 주민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거리정비사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과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지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도시재생, 파트너쉽, 커뮤니티, 특화거리

1. 서론

국내에서는 도시확산으로 인한 도심지역의 쇠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산업, 경제, 주거기능이 이전을 하여 기존 도시가 낙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뉴타운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부터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사업들이 있다. 최근에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거리정비사업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문화관광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경기도 등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중 하나이다.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확보를 위해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행정은 힘을 합쳐 노력한다. 그러나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지역주민들과 행정이 지역활성화라는 일치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추진방식에 따른 소

통의 문제, 사업효과 검증에 대한 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초기에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요소를 목표로 지향하는 것에 반해, 결과적으로는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단일 요소의 성과에만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은 공사기간 중 불편함을 겪고, 보도블럭 교체 등과 같은 물리적 개선사업은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어 거리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박천보(2009)에 의하면 거리정비사업은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도심재생 및 활성화 방법 중 하나로서, 유동인구의 증가가 매출 증대 및 토지이용 변화를 일으켜 도심내 활성화로 연계되고, 이것이 도시재생에 이바지한다고 한다. 서원희 등(2008)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정철모(2009)는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사업주체와 지원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한 것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손재룡 등(2003)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한 거리정비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환경개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네트워킹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사회적 변화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시도하는 것에 반해, 사업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사업추진시

주민참여방식이 정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반적 의식수준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방식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국토연구원(2006)는 주민의 관련 정도에 따라 참가, 참가 및 기획, 주도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홍인옥(2006)은 주민참여를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주민참여형, 주민·외부지원형, 주민·외부지원·행정형, 주민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주민참여라고 할지라도 주민관련정도나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주민참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황희연(2005)은 주민대표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특정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갖게 되는 기대치와 실제의 효과 간의 상당한 차이 발생,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시간낭비로 행정처리의 지연, 관 주도 시대에 만들어진 행정조직이 민원처리에 겪는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승엽(2008)은 주민, 행정, 전문가의 제도적 협력체제는 도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도시관리운영의 구성 및 운영방안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정재훈(2010)은 현재 난항을 보이고 있는 주민참여의 원인을 주민조직과 리더의 역할 및 리더십의 중요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중요하지만, 추진시 지역 리더 및 행정가의 역할, 의견수렴 방법, 지역적 특성, 참여주민들의 특성 등에 따라 사업의 결과가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거리정비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주민참여가 중요하고, 주민참여에서도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를 통해 어떠한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가 높아지고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과 추진방식의 다양한 요소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추진하는 거리정비사업의 목표를 지역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통해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민참여방식 차이가 활성화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 중 사업여건은 비슷하나, 주민참여 정도와 역할이 다른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공통적으로는 중소도시의 규모, 사업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난 곳,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으로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디자인특화거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대상지의 사업여건과 추진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지역활성화에 해당하는 항목을 설문하여 지표별 활성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주민참여방식에 따른 활성화 정도와 주민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과정

본 연구는 대상지역의 현황과 사업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두 대상지의 최종보고서와 내부 문서를 참고하였고, 두 사례의 추진과정과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행정가 및 추진협의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지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자료조사와 행정참여자 및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인 담당공무원은 사업기획부터 공사완료까지 관여하였으며,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지역 리더는 주민참여방식에서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었으며, 지역 리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려고 선정하였다. 면접조사일시는 5월 4일 시흥은행동 상가변영회와 시흥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19일 원주 중앙로 상점회, 원주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방법은 비지시적 면접법으로 지역리더의 역할, 행정의 역할, 민원해결방법, 의사결정권, 교육수료 여부, 답사 여부, 회의회수, 공사기간 중의 문제, 전문가의 역할, 주민참여도 총 10개의 질문문항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거리정비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설문하였다. 설문조사는 시흥은 5월 4일에 실시하였고, 원주는 5월 20~2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구조화된 자기식 회답법인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설문항목은 크게 활성화 지표 항목 21개, 지역 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5개 항목, 추진협의체 참여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4개 항목, 만족도, 일반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활성화 지표 21개 항목은 지역활성화를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박천보(2009)의 연구에서 도출된 물리환경적 측면과 경영측면의 요소와 김민규(2010)의 연구에서 도출된 도시의 정체성 및 이미지 향상,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 도시민의 어메니티 제공 및 공동체 형성, 지역경쟁력 강화에서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물리적 측면에서는 아름다움,

세련됨,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차별성, 경제적 측면에서는 방문객수, 매출, 점포임대료, 상권홍보, 인지도, 친숙성, 자긍심, 사회적 측면에서는 만남회수, 회의지속성, 행사이벤트, 홍보지 발간, 유지관리, 행정소통, 행정신뢰, 정책관심 총 21개의 지표 특성도출을 위한 변수가 설정되었다. 활성화 지표 21개 항목은 분류된 항목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 측면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지역활성화의 요인분석 결과와 지역주민 및 추진협의체 참여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평균을 살펴보았으며, T검증을 통해 집단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주민참여 방식별 활성화 지표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거리정비사업 주민참여방식 특성 고찰

1) 대상지 개요

원주시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주요 공공기관 이전, 대형 유통점의 입점 등으로 기존의 핵심상권인 중앙로의 상업적·문화적 기능의 유출, 도시기반 시설 부족,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유인인구와 상주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시가지인 중앙로의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원주는 구 중심시가지인 중앙로의 '문화의 거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원주시 중앙로는 2004년 03월 중앙로 상인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 문화의 거리 행사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고, 2008년 행정안전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선정되었다. 원주시 중앙로의 가로정비사업 목적은 중앙로의 도로시설물 및 광고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상권활성화 및 도심지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였다. 총 사업비는 35억 6천 8백만원 중 국비 20억, 시비 15억 6천 8백만원으로 국비 56%, 시비 44%가 소요되었다. 사업기간은 총 1년 9개월로 2008년에 완료되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1년, 공사는 9개월이 소요되었다. 공사가 완료된 사업구간은 총 길이 350m, 폭 10m의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보도포장, 가로등, 화단, 벤치, 야간조명, 간판, 지중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그림 1 참조).

시흥시는 기존 시가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2008년 경기도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은행동 574번지 일원을 거리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은행동 574번지 일대는 시흥시 북부생활권의 중심지로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었으며, 유동인구가 많으나 상권이 점점 약화되고 상인들이 청소년 문화존 행사운영에 불만 등 다양한 잠재력 및 문제점이 있었다. 대상지내에서는 주로 주류나 음식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국한되어 있어, 주류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로 인하여 차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학원들은 행사로 인하여 소음 발생이 학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내부적 문제뿐 아니라 주변에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서 유동인구가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낙후된 공공시설물의 통합된 디자인 개발로 거리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거리를 구현하고,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총 사업비는 20억 1천 9백만원 중 도비 6억 3천 4백만원, 시비 13억 8천 5백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소요되었다. 사업기간은 총 1년 2개월로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가 8개월, 공사가 6개월이었다. 사업구간은 십자가 모양으로 총 길이 390m, 폭 10m였으며, 남북방향이 200m의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동서방향은 보행도로로 190m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화강석 보도포장, 가로등, 식수대 설치, 분수, 게이트, 아트월, 벤치, 물길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9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그림 2 참조).

원주시와 시흥시 거리정비사업을 비교해 보면, 위치, 사업배경,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구간, 추진방식은 유사하였고, 선정배경 및 주체가 원주는 지역상인회에서 제기한 것에 반해 시흥은 행정에서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비에서는 약 10억원 가량의 차이가 나며, 이는 원주에서 간판정비사업에 약 10억원 가량을 소요하였으므로, 사업내용에 따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사업기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총 기간 중 공사기간을 빼면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때, 원주는 시흥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간이 많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2) 거리정비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내용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의 추진협의체는 2004년부터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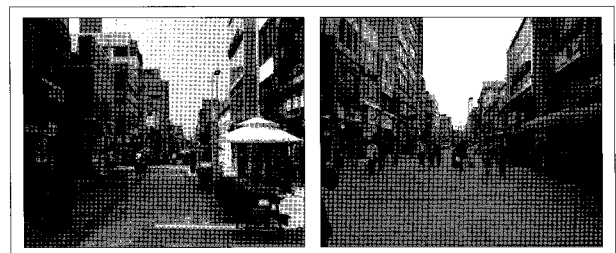


그림 1. 원주시 대상지 현황



그림 2. 시흥시 대상지 현황

표 1. 원주시·시흥시 거리정비사업 개요

사업명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시흥시 은행택지 디자인 특화가로
위치	시공관~관광호텔	대야동 574번지 일원
문제제기 주체	상인회	시흥시
사업배경	구도심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
사업목적	공공시설물, 간판 사업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비	총: 3,568백만원	총: 2,019백만원
사업기간	총 기간: 2007.04~2008.12 공사기간: 2008.05~12	총 기간: 2008.09~2009.10 공사기간: 2009.04~10
사업구간	350m	390m
주민참여 기간	2007년 4월~2008년 4월 (12개월)	2008년 9월~2009년 3월 (7개월)
주요사업 내용	보도포장, 가로등, 화단, 벤치, 야간조명, 간판 전기·통신시설 등	보도포장, 가로등, 화단, 벤치, 식재, 분수, 야간조명, 아트월 등
추진방식	주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준공년도	2008	2009

인회 회장으로 추대되어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졌다. 추진협의체의 대표는 사업 초반부터 끝까지 재선임 없이 연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간판사업 추진시 시공권이 특정업체에 몰리지 않고 원주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 건의하는 등의 지역 리더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은행택지 디자인 특화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로 '디자인 서포터즈'를 구성하였다. 디자인 서포터즈는 2009년 01월에 발족을 하였으며, 구성은 공무원, 상인, 지역주민, 시민단체(청소년 동아리 연맹, 시흥의제 21), 마스터플래너(MP), 디자인전문업체로 이루어졌다. 구성원 중에서 상인은 기존 커뮤니티 공동체인 은행동 상가번영회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추진협의체 대표는 사업대상지가 큰 길을 중심으로 은행동과 대야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중간에 바뀌었다. 구성은 행정에서 민원발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시기는 디자인 구상단계가 이후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원주는 지역 리더의 역할

표 2. 원주시·시흥시 추진협의체 구성현황

추진 협의체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	시흥시 은행택지 디자인 특화가로
이름	문화의 거리 상가번영회	디자인 서포터즈
구성	상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 유관기관, 업체	상가, 주민, MP, 시민단체, 행정, 업체
구성주체	초기는 자발적, 실시설계부터 행정 참여	행정주도
구성시기	2008	2009
커뮤니티	중앙로 상점회	은행·대야동 상가번영회
대표	중앙로 상점회 회장(연임)	대야동▶은행동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변경

과 입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시흥은 마스터 플래너를 위촉하는 등 전문가의 입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구성을 하는 주체에서도 원주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역할이 컸으며, 시흥은 행정의 역할이 컸다. 구성시기에 있어서도 원주는 상인회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된 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시흥은 주민이 참여한 단계가 이미 디자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참여시점의 차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을 때 원주는 지역 리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것에 반해 시흥은 중간에 바뀐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3) 추진협의체 특성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간의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추진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항목들을 14개로 분류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비교하였다. 지역 리더의 역할에서 두 지역 모두 상인설득과 행정과의 소통을 담당하였지만, 원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리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던 점은 다르게 나타났다. 시흥과 원주의 행정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시흥은 지자체가 먼저 사업의 문제 제기를 하고 디자인 계획 이후 주민을 참여시킨 것에 반해, 원주는 지역주민이 먼저 사업의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이후 지자체가 예산지원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역할을 살펴볼 때 시흥은 적극적이고, 원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으나, 주민참여 특성으로 보면 시흥은 수동적이었고, 원주는 능동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때 시흥은 마스터 플래너의 역할과 디자인 결정권이 강했으며, 원주시는 사업구상단계에서 참여하였던 전문가집단의 역할 또한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흥시에는 추진협의체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았고, 원주시는 사무실이 있었으며,

부장 1명, 주임 1명으로 월급은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주민교육 및 답사의 경우, 시흥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표와 몇몇 희망자가 다녀왔으나, 원주의 경우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답사하는 등 지역상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추진되었다. 시흥은 사업추진시 원주에 비해 더 많은 민원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의 지연과 디자인 의견 차이 등 의견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원주는 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리더가 각서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4) 대상지별 주민참여방식 유형

원주시와 시흥시의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시 주민참여 기법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두 대상지 모두 행정과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진모형이 같은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일지라도 사업제기의 주체, 주민참여 정도, 지역리더 역량,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 등과 같은 추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선기, 이소영(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형 추진모형을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인 주민참가형에서부터 주민기획형, 가장 높은 단계인 주민주도형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¹⁾.

심층면접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지의 주민참여방식을 살펴보면, 원주는 주민이 사업의 문제제기를 하고 디자인결정권 등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주도형으로 볼 수 있다. 시흥은 사업의 필요성을 행정에서 인식하였으며, MP와 전문가가 디자인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용을 검토하고 등의 계획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주민참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 정도에 따라 원주를 발전단계가 가장 높은 주민주도형으로 시흥은 발전단계가 초기수준인 주민참여형으로 분류하였다.

2. 지역 주민 설문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는 거리정비사업을 실시한 2개 지역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총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중 남자는 51명(52%), 여자는 47명(48%)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30~50대가 63명(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종사년수는 4년 이상 운영한 사람이 43명(43.9%), 상점위치는 1층이 72명(73.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은 원주가 50명(51%), 시흥이 48명(49%)이고,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사람은 24명(24.5%),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74명(74.5%)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지별 심층면접조사 결과

질문	원주시	시흥시
1. 추진구성원 구성	기존 상인 커뮤니티,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구성	기존 상인 커뮤니티, 주민, 시민단체, MP, 전문가 구성
2. 추진협의체 참여 시기	문제제기부터	디자인 계획 이후
3. 지역리더의 역할	상인설득 및 문제해결, 대외 홍보	상인설득 및 행정협의
4. 행정의 권한	소극적	적극적
5. MP 및 전문가의 역할	조연자	디자인 결정권자
6. 전담센터나 인력	있음, 2명	없음
7. 주민 교육 및 답사	3회 이상	1회
8. 주민설명회/공청회	3회 이상	2회
9. 회의	수시로	가끔
10. 의견 조율방법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름	MP의 의견 수렴
11. 민원 해결방법	추진협의체 협조	행정 대응
12. 주민참여도 및 반응	적극적이며 긍정적	제한적이며 부정적
13. 공사기간 중 문제점	특별사항 없음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14. 사업 추진의 어려움	특별사항 없음	협의의 어려움

3. 요인분석에 의한 활성화 지표 도출

거리활성화 지표들을 상관성이 높은 항목끼리 묶어 보다 적은 변수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자료는 배리맥스(varimax) 방식에 의해 회전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분석은 1차, 2차로 진행되었으며, 1차 분석은 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찾아내어 분석에서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21개의 지표 중 '점포임대료'의 지표가 어떤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1개의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의 지표를 가지고 2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적합도 KMO값이 0.934로써 통계적 기준인 0.7보다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p값이 0.000로서 유의수준 $\alpha \leq 0.01$ 에서도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 주어 본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고정된 요인수 4개를 설정하였으며, 이들의 누적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약 80.5%로 통계적 기준인 75%를 넘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차별성, 청결성, 세련성, 아름다움, 편리성, 안전성, 친숙도, 자긍심을 포함하고 있는 제1요인을 물리적활성화로, 홍보지, 유지관리, 행정소통, 행정신뢰, 정책관심을 포함하고 있는 제2요인을 파트너쉽활성화로 명명하였다. 만남회수, 회의지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3요인은 커뮤니티활성화, 방문객수, 매출, 인지도, 상권홍보를 포함하고 있는 제4요인은 경제적활성화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

표 4. 회전된 성분행렬

항목 \ 요인	제1요인 물리적 활성화	제2요인 파트너쉽 활성화	제3요인 커뮤니티 활성화	제4요인 경제적 활성화
차별성	0.827	0.125	0.335	0.016
쾌적성	0.799	0.249	0.220	0.156
세련됨	0.781	0.271	0.062	0.295
아름다움	0.760	0.242	0.143	0.361
편리성	0.747	0.194	0.227	0.369
안전성	0.709	0.197	0.230	0.329
친숙도	0.565	0.329	0.386	0.501
자긍심	0.529	0.371	0.428	0.457
홍보지	0.069	0.824	-0.051	0.327
유지관리	0.448	0.740	0.213	-0.033
행정소통	0.295	0.722	0.348	0.287
행정신뢰	0.277	0.636	0.470	0.291
정책관심	0.338	0.581	0.567	0.103
행사이벤트	0.253	0.494	0.408	0.376
만남회수	0.278	0.120	0.799	0.291
회의지속성	0.164	0.198	0.769	0.282
방문객수	0.405	0.312	0.425	0.696
매출	0.362	0.393	0.385	0.695
인지도	0.456	0.286	0.474	0.639
상권홍보	0.477	0.225	0.499	0.630
고유값	5.552	3.703	3.530	3.311
공동분산(%)	27.762	18.515	17.652	16.553
누적비율(%)	27.762	46.277	63.929	80.482
표본적합도(KMO)	0.934			
Bartlett 구형성검정치	2202.566(0.000)			
Cronbach's Alpha	0.949	0.977	0.843	0.907

시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최소 0.843으로 통계적 기준인 0.6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 활성화 지표의 영향 분석

주민참여방식에 따른 활성화 지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참여방식과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민참여방식별 활성화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민참여방식별 활성화 지표 영향은 4개의 활성화 지표를 T검증하여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전체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4개의 활성화 지표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번째로 지역주민특성이 활성화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주민 특성에서 사업추진인지여부, 추진협의체 인지여부, 추진협의체 참여여부, 상점의 위치 등 요인변수 5개 항목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진협의체 참여자 특성은 주민참여시 참여 역할, 회의참여횟수, 회의시 의견 반영 정도,

표 5. 요인 변수 구성

구분	내용
주민참여방식 특성	- 주민참여방식과 활성화 요인과의 관계 - 주민참여방식별 활성화 지표 영향
지역주민 특성	- 사업추진인지여부 - 추진협의체 인지여부 - 추진협의체 참여여부 - 추진협의체 참여 의사 여부 - 상점의 위치
추진협의체 참여자 특성	- 주민참여시 참여 역할 - 회의참여횟수 - 회의시 의견 반영 정도 - 주민참여 필요여부

주민참여 필요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1) 주민참여방식 특성

(1) 주민참여방식과 활성화 요인과의 관계

주민참여방식에 따른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주도형에 참여한 응답자(2,951)가 주민참가형에 참여한 응답자(1,987)에 비해 전체적인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파트너쉽·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 모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물리적·경제적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집단간 차이는 경제적활성화와 물리적활성화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주민참여방식에서 주민이 주도하였는지는 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디자인을 누가 결정했는지, 사업 제안자가 누구인지,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얼마만큼 주었는지가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경제적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각 유형별 활성화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 정도는 사업 활성화에 영향력이 큰 것임을 시사한다. T-test 결과, 물리적·파트너쉽·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가 유의확률<0.05이므로 주민참여방식별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주민참여방식과 활성화 유형과의 관계

주민참여방식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쉽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주민주도형 (N=50)	평균	3.465	2.760	2.540	3.040	2.951
	표준편차	(0.976)	(1.017)	(1.147)	(1.263)	(0.963)
주민참여형 (N=48)	평균	2.266	1.924	1.958	1.802	1.987
	표준편차	(0.787)	(0.727)	(0.843)	(0.898)	(0.702)
t-값		6.679	4.698	2.869	5.610	5.681
자유도		96	88.807	89.985	88.565	89.623
유의확률		0.000	0.000	0.005	0.000	0.000

(2) 주민참여방식별 활성화 지표 영향

주민참여방식별 활성화 지표와 종합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종합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활성화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주도형의 경우, 모형의 적합성은 F -검증과 결정계수 (R^2)로 검정하였으며,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F 값이 29.451($p < 0.01$)로 나타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결정계수(R^2)의 값이 0.724로 전체변량의 72%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독립변수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을 알 수 있는 표준화계수(B)의 값이 모두 정(+)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커뮤니티활성화는 0.605, 경제적활성화는 0.644, 물리적활성화는 0.665, 파트너쉽활성화는 0.452순으로 단계적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리적활성화, 경제적활성화, 커뮤니티활성화는 높게 나타났고, 파트너쉽활성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지표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7 참조).

주민참가형의 경우, 모형의 적합성은 F -검증과 결정계수 (R^2)로 검정하였으며,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F 값이 22.431($p < 0.01$)로 나타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결정계수(R^2)의 값이 0.605로 전체변량의 61%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변수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을 알 수 있는 표준화계수(B)의 값이 모두 정(+)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물리적활성화는 0.897, 커뮤니티활성화는 0.560, 경제적활성화는 0.460 순으로 단계적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리적활성화는 높게 나타났으며, 커뮤니티활성화, 경제적활성화가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8 참조). 이는 추진방식의 유형에 상관없이 물리적활성화는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역주민 특성

(1) 사업추진인지여부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사업추진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82%가 사업에 대해 알고

표 7. 주민주도형 활성화 지표와 만족도의 회귀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공차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38	0.132	-	20.049	0.000	-
커뮤니티활성화	0.605	0.102	0.477	5.953	0.000	0.958
경제적활성화	0.644	0.107	0.486	6.001	0.000	0.936
물리적활성화	0.665	0.121	0.451	5.503	0.000	0.913
파트너쉽활성화	0.452	0.093	0.390	4.863	0.000	0.955

$R=0.851, R^2=0.724, F=29.451, p=0.000, \text{Durbin-Watson}=1.856$

표 8. 주민참여형 활성화 지표와 만족도의 회귀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공차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671	0.127	-	21.093	0.000	-
물리적활성화	0.897	0.125	0.698	7.157	0.000	0.944
커뮤니티활성화	0.560	0.116	0.475	4.834	0.000	0.931
경제적활성화	0.460	0.123	0.366	3.734	0.001	0.933

$R=0.778, R^2=0.605, F=22.431, p=0.000, \text{Durbin-Watson}=1.686$

표 9. 사업추진인지여부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사업추진 인지여부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쉽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안다 (N=80)	평균 (1.089)	2.880 (0.974)	2.323 (1.061)	2.238 (1.280)
모른다 (N=18)	평균 (1.009)	2.868 (1.012)	2.472 (1.000)	2.333 (1.151)	2.595 (0.937)	
t-값		0.041	-0.584	-0.350	-1.025	-0.561
자유도		96	96	96	96	96
유의확률		0.967	0.561	0.727	0.308	0.576

있었으며, 18%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활성화 지표 4개에 대해 활성화 인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못한 응답자 사이에는 물리적 항목이 0.01로 최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T -test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사업추진인지여부에 따른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사업을 추진한 것을 아는 응답자(2.453)가 모르는 응답자(2.595)에 비해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커뮤니티활성화는 높게 나타났으나, 파트너쉽·경제적활성화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의 편차는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인지여부는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T -test 결과, 유의확률 <0.05 이므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표 9 참조).

(2) 추진협의체 인지여부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추진협의체 인지여부에 따른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추진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2.53)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활성화, 커뮤니티활성화, 경제적활성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파트너쉽활성화는 낮게 나타났다. 그 중 물리적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집단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추진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업의 활성화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파트너쉽활성화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추진협의체 인지여부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추진협의체 인지여부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쉽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안다 (N=48)	평균	3.026	2.337	2.323	2.438	2.531
	표준편차	(1.080)	(0.953)	(1.094)	(1.274)	(0.982)
모른다 (N=50)	평균	2.735	2.363	2.190	2.430	2.430
	표준편차	(1.051)	(1.009)	(1.005)	(1.256)	(0.966)
t-값		1.352	-0.134	0.627	0.029	0.514
자유도		96	96	96	96	96
유의확률		0.180	0.894	0.532	0.977	0.608

이는 행정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test 결과,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유의확률 > 0.05이므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표 10 참조).

(3) 추진협의체 참여여부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추진협의체 참여여부에 따른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응답자(2.61)가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2.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파트너쉽활성화는 낮게 나타났다. 그 중 물리적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집단간 차이는 커뮤니티활성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추진협의체에 참여를 하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업의 활성화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커뮤니티활성화에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트너쉽활성화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행정과의 협력관계에 있어 신뢰관계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T-test 결과, 유의확률 > 0.05이므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표 11 참조).

(4) 참여의사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향후 거리정비사업 추진시 참여할 의사에 따른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추진협의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2.97)가

표 11. 추진협의체 참여여부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기존 추진협의체 참여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쉽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참여 (N=24)	평균	3.005	2.340	2.521	2.552	2.605
	표준편차	(1.290)	(1.082)	(1.229)	(1.361)	(1.103)
불참여 (N=74)	평균	2.836	2.354	2.169	2.395	2.438
	표준편차	(0.995)	(0.949)	(0.973)	(1.230)	(0.928)
t-값		0.671	-0.058	1.440	0.529	0.727
자유도		96	96	96	96	96
유의확률		0.504	0.954	0.153	0.598	0.469

표 12. 참여의사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참여의사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쉽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참여 (N=43)	평균	3.372	2.795	2.686	3.012	2.966
	표준편차	(1.103)	(0.903)	(1.080)	(1.300)	(0.965)
불참여 (N=55)	평균	2.491	2.003	1.918	1.982	2.098
	표준편차	(0.873)	(0.895)	(0.891)	(1.027)	(0.793)
t-값		4.415	4.327	3.855	4.382	4.884
자유도		96.000	96.000	96.000	96.000	96.000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희망하지 않은 응답자(2.10)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파트너쉽·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 4개의 지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물리적·경제적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경제적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개의 활성화 지표가 높은 사람이 향후 사업 추진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았으며, 이는 추진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거나, 활성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활성화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다른 사업 추진시에도 참여도를 높힐 것이고, 주민참여가 사업의 활성화에도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test 결과, 유의확률 < 0.05이므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표 12 참조).

(5) 상점위치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상점위치에 따른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1층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응답자(2.59)가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2.16)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파트너쉽·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 4개 지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물리적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집단간의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1층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은 그들은 사업에 대한 수혜가 컸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1층 이외의 상

표 13. 상점위치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상점위치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쉽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1층 (N=72)	평균	3.017	2.442	2.368	2.549	2.594
	표준편차	(0.989)	(0.966)	(1.068)	(1.230)	(0.927)
1층 이외 (N=26)	평균	2.490	2.096	1.942	2.115	2.161
	표준편차	(1.205)	(0.981)	(0.931)	(1.304)	(1.033)
t-값		-2.195	-1.559	-1.799	-1.515	-1.980
자유도		96.000	96.000	96.000	96.000	96.000
유의확률		0.031	0.122	0.075	0.133	0.051

점들은 수혜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test 결과, 4개 지표 중 물리적활성화가 유의확률<0.05이므로 층수별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파트너쉽·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 지표는 유의확률>0.05이므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표 13 참조).

3) 추진협의체 참여자 특성

(1) 회의참석횟수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주민들 중 회의참석횟수에 따른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3회를 기준으로 회의참석횟수가 적은 응답자(2,755)가 회의참석횟수가 많은 응답자(2,515)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파트너쉽·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 4개 지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물리적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파트너쉽활성화는 두 집단간에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은 회의에 참석한 횟수가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정과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행정과의 소통에 문제를 느끼고 있거나 또는 행정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test 결과, 4개 지표 모두 유의확률>0.05이므로 회의참석횟수별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14 참조).

(2) 회의시 의견반영정도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주민들 중 회의시 의견반영정도에 따른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원활하다고 느낀 응답자(3,213)가 보통이하라고 느낀 응답자(2,354)에 비해 평균값이 높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파트너쉽·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 4개 지표 모두 높았다. 그 중 물리적·파트너쉽·경제적활성화 3가지 지표는 긍정적으로

표 14. 회의참석횟수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회의참석횟수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쉽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3회이상 (N=15)	평균	2.908	2.167	2.500	2.483	2.515
	표준편차	1.403	1.173	1.134	1.425	1.210
2회이하 (N=9)	평균	3.167	2.630	2.556	2.667	2.755
	표준편차	1.135	0.897	1.446	1.323	0.946
t-값		-0.467	-1.016	-0.105	-0.313	-0.508
자유도		22	22	22	22	22
유의확률		0.645	0.321	0.917	0.757	0.617

표 15. 회의시 의견반영정도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회의시 의견반영정도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쉽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원활이상 (N=7)	평균	3.625	3.048	2.714	3.464	3.213
	표준편차	1.409	1.193	1.254	1.380	1.162
보통이하 (N=17)	평균	2.750	2.049	2.441	2.176	2.354
	표준편차	1.188	0.916	1.249	1.198	1.007
t-값		1.557	2.225	.487	2.293	1.818
자유도		22	22	22	22	22
유의확률		0.134	0.037	0.631	0.032	0.083

평가하고 있었고, 경제적활성화는 가장 큰 편차를 나타냈으며, 커뮤니티활성화는 편차가 미비하였다. 의견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느낀 사람들일수록 사업의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파트너쉽이나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지표뿐 아니라 물리적·경제적활성화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통해 추진협의체 참여자들은 이러한 회의가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교류로 여기기보다는 행정과의 신뢰나 소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것을 시사한다.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반영이 원활할수록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통해 추진협의체의 회의시 의견수렴과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test 결과, 파트너쉽·경제적활성화 지표는 유의확률<0.05이므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물리적·커뮤니티활성화 지표는 유의확률>0.05이므로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표 15 참조).

(3) 주민참여 필요여부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주민들 중 주민참여 필요여부에 따른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필요하다고 느낀 응답자(2,645)가 그렇지 않다고 느낀 응답자(2,161)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파트너쉽·경제적활성화 3개 지표는 높았고, 커뮤니티활성화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민참여가 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커뮤니티활성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현재 추진협의체 회의나 참여방식이 행정과의 소통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주민간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T-test 결과, 모든 항목이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유의확률>0.05이므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표 16 참조).

(4) 참여역할과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주민들 중 참여역할에 따른 응답결과

표 16. 주민참여 필요여부와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주민참여필요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십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네 (N=22)	평균	3.080	2.386	2.500	2.614	2.645
	표준편차	1.320	1.116	1.282	1.395	1.143
아니오 (N=2)	평균	2.188	1.833	2.750	1.875	2.161
	표준편차	0.442	0.471	0.354	0.884	0.317
t-값		0.934	0.684	-0.270	0.727	0.585
자유도		22	22	22	22	22
유의확률		0.361	0.501	0.790	0.475	0.565

표 17. 참여역할과 활성화 지표와의 관계

추진시 역할		물리적 활성화	파트너십 활성화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적 활성화	종합
임원 이상 (N=9)	평균	3.514	2.611	3.056	3.167	3.087
	표준편차	1.035	0.972	1.074	1.104	1.004
참가자 (N=15)	평균	2.700	2.178	2.200	2.183	2.315
	표준편차	1.362	1.143	1.236	1.400	1.088
t-값		-1.541	-0.948	-1.720	-1.794	-1.729
자유도		22	22	22	22	22
유의확률		0.138	0.353	0.099	0.087	0.098

를 비교하면, 임원 이상인 응답자(3.087)가 참가자인 응답자(2.315)에 비해 평균값이 높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물리적·파트너십·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 4개 지표 모두 높았다. 그 중 물리적·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 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제적활성화는 편차가 컸고, 파트너십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임원 이상의 역할일수록 행정과 만날 기회가 많고, 의견 조율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파트너십활성화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해석된다. 그리고, 경제적활성화가 편차가 높은 것은 임원 이상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또는 임원 이상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노력으로 경제적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T-test 결과, 모든 항목이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유의확률>0.05이므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표 17 참조).

IV. 고찰

1. 영향 요인 특성

연구대상지의 주민참여 특성을 파악한 결과, 원주시는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주민주도형으로, 시흥시는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인 주민참여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지역

활성화 지표를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결과,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지표의 3가지 항목에서 더 세분화된 물리적·경제적·파트너십·커뮤니티 지표로 나뉘어졌다. 최초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에서의 물리적·경제적 지표간에는 세부 항목간 이동이 있었고, 사회적인 부분은 파트너십과 커뮤니티로 세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4가지 활성화 지표를 주민참여방식 특성, 지역주민 특성, 추진협의체 참여자 특성으로 나누어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8 참조).

먼저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낸 것은 주민참여방식 특성과 지역주민 특성 중 참여의사로 나타났다. 주민참여방식은 주민주도형이 주민참여형보다 모든 지표에서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고, 물리적·경제적활성화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주도형이나 주민참여형 모두 만족도에는 물리적활성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물리적활성화 지표가 사업추진방식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활성화 지표도 두 사례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부적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주민주도형과 주민참여형은 파트너십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방식이 민, 관, 전문가 집단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기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두번째로 지역주민 특성을 살펴볼 때 참여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사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참여도를 높혀 사업을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집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형식적이라고 판단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유의한 통계값을 나타낸 것은 항목은 상점의 위치와 회의시 의견반영 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거리정비사업의 공간영역이 주로 1층에 있는 상점과 가까운 만큼 다른 지표보다도 물리적활성화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의시 의견반영이 원활하다고 여긴 집단이 파트너십활성화에 차이를 나타내 추진협의체 회의는 커뮤니티보다는 행정과의 소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가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물리적·파트너십·커뮤니티·경제적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업추진여부를 아는 집단, 추진협의체의 존재를 알고 있는 집단,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집단, 회의참석횟수가 적은 집단,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 임원 이상의 역할로 참여한 집단이 대

표 18. 영향 요인 특성

구분		물리적활성화	파트너쉽활성화	커뮤니티활성화	경제적활성화	유의여부	
주민참여방식 특성	주민참여별	*주도>참여	주도>참여	주도>참여	*주도>참여	○	
	**활성화유형 영향	원주	1	4	3	2	○
		시흥	1	-	2	3	
지역주민 특성	사업추진인지 유무	안다>모른다	안다>모른다	안다>모른다	안다>모른다	×	
	추진협의체인지 유무	*안다>모른다	안다<모른다	안다>모른다	안다>모른다	×	
	추진협의체 참여	*참여>불참	참여<불참	참여>불참	참여<불참	×	
	상점위치	*1층>그외	1층>그외	1층>그외	1층>그외	△(물리적)	
	참여의사	*참여>불참	참여>불참	참여>불참	*참여>불참	○	
추진협의체 참여자 특성	회의참석횟수	많다<*적다	많다<적다	많다<적다	많다<적다	×	
	회의시 의견반영정도	*원활>보통이하	*원활>보통이하	원활>보통이하	*원활>보통이하	△(파트너쉽,경제적)	
	주민참여 필요여부	*필요>불필요	필요>불필요	필요<불필요	필요>불필요	×	
	참여역할	*임원 이상>참가자	임원 이상>참가자	*임원 이상>참가자	*임원 이상>참가자	×	

* 평균3,000을 넘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임

** 회귀분석에 의한 만족도 영향력 순위

○ 통계상 유의함, △통계상 부분적으로 유의함, × 통계상 유의하지 않음

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추진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집단과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파트너쉽활성화에 부정적이었다. 이것은 추진협의체와 행정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진협의체 참여자 중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커뮤니티활성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추진협의체가 주민간의 소통이 아닌 행정과의 소통에 치우치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추진협의체에 참여한 집단이 경제적활성화와 파트너쉽활성화에서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시사점

주민주도형 거리정비사업과 주민참가형 거리정비사업 사례 비교를 통한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주도형 추진방식이 주민참여형 추진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사업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을 보았을 때는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리정비사업이 단순히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역주민의 참여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사례 비교를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물리적 환경 개선이 MP나 전문가 참여로 기능적 측면과 디자인적인 측면을 보다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했는지에 따라 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의견수렴의 절차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사업의 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거리정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사업의 과정을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활성화와 같이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도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정비사업이 주로 상업화되어 있는 가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내 상가들의 단순 매출액 증가나 방문객증가와 같은 지표가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반영 및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외부적 평가로 인한 실패 및 성공을 떠나 내부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의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파트너쉽활성화와 커뮤니티활성화는 서로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각각 독립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주민주도 방식과 주민 참여방식의 거리정비사업에서 다른지표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성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추진협의체는 지역주민들간의 소통보다는 행정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거리정비사업이 물리적·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고, 추진협의체는 행정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 내부 주민들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그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내발적 역량강화와 스스로의 주

도가 지속적인 진화과정을 이끌며 발전해 나간다고 볼 때, 사회적 측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진협의체가 행정과의 소통을 위한 집단이 아닌 스스로의 의견과 많은 주민들과 소통이 되어 외부적으로는 파트너쉽활성화, 내부적으로는 커뮤니티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체로 보다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은 기존 거리정비사업 방식에 비해 시간적 투자와 참여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책임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영향이 높은 물리적 환경개선의 디자인결정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사업의 목표에 맞게 명확하게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물리적 개선에만 본다면 굳이 주민참여에 대한 고민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주민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거리정비사업을 지역활성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파트너쉽과 커뮤니티활성화와 같은 활성화 지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파트너쉽활성화와 커뮤니티활성화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두 사례에서 모두 부정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주민참여방식은 주민들 내부에서의 소통 한계와 및 행정과 전문가집단의 상호 신뢰관계형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파트너쉽 · 커뮤니티 · 경제적활성화로 나누어 지역활성화를 평가하고, 주민참여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한 내부적 문제 고찰을 통한 주민참여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물리적 환경 개선이 사업의 만족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대상지가 두 개로 한정되어 추진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주민 설문문의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수준을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한 주민참여 방식에서 내부적인 다양한 문제점들을 확인하

는 것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여겨진다. 향후 거리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다양한 연구 대상이 확보된다면 주민참여를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3가지 유형 중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민기획형을 포함하는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주민참여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후속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김선기와 이소영(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주민참여는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인 주민참가형은 주민이 지역 만들기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참여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계획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2단계인 주민기획형은 주민이 문제의 분석과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여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 주민은 의사결정권을 소유하지만, 그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외부의 리더들에 의해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3단계인 주민 주도형은 주민이 지역문제 분석, 활동계획의 수립과정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도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단계를 일컫는다.

인용문헌

1. 김민규(2010) 청담동 패션 특구의 가로 활성화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지 29(1): 5-12.
2. 김선기, 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국가균형발전위 · 국토연구원(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꾸리. 서울: 한울아카데미.
4. 박천보(2009) 물리환경적 도심재생 관점의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8): 285-292.
5. 서원희, 이현희, 강준모, 황기연(2008)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도입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협동학술대회 pp. 257-270.
6. 손재룡, 최준호, 이용준, 이상호, 이경희(2003) 특화거리 조성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Network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1): 487-490.
7. 이승엽(2008) 주민참여를 통한 도심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건설환경논총 제10호 91-110.
8. 정재훈(2010) 주민조직 리더십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사동, 부평 문화의 거리, 건대앞 노유 로데오거리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정철모(2009)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쉽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2(1): 69-91.
10. 홍인옥(2006) 도시와 주민참여.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11. 황희연(2005) 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정착화. 대한건축학회지 49(8): 52-54.

원 고 접 수 일: 2011년 1월 13일
 심 사 일: 2011년 2월 28일(1차)
 2011년 3월 10일(2차)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17일
 3인익명 심사필